

1974

디자인진흥원사

- 《해외포장자료전》 개최
- 아시아포장연맹(APF) 이사회 참가
-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 (ICOGRADA) 총회 참가
- 디자인포장기사 제도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 《완구제품 굿디자인 전시회》 개최
- 《넥타이 굿디자인 전시회》 개최

한국 디자인사

- 기아자동차 브리사 출시
- 현대자동차 포니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 참가
- 동양맥주 CI 개발
- CDR의 전신 조영제디자인연구소 설립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패키지 생산
- 국내 최초 컬러 TV 생산 (아남 CT-201)

한국 사회사

-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 민청학련 사건
- 지하철 1호선 개통

국산 자동차와 생활가전:
국산화 붐

1960-1970년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각종 제도와 무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시기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매해 수출 목표가 책정되었으며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내수 시장 역시 점차 활기를 띠었다. 1961년 KBS TV가 개국했고, 1964년에는 동양방송 TV가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TV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나라자동차(현 한국GM)가 준공되어 블루버드를 수입했고, 1965년에는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며 설립된 신진자동차공업이 일본 도요타와 기술 제휴를 맺었다. 1966년에는 금성사에서 최초로 흑백 TV를 생산했다. 이렇듯 산업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초를 닦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드는 국산 제품을 책임질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중 제조업계에서 금성사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금성 라디오 A - 501은 1959년 11월 15일 출시된 최초의 국산 진공관 라디오로서, 1962년 미국 아이젠버그사에 라디오 62대를 수출해 국산 가전 제품으로서는 첫 수출을 기록했다. 금성 TV VD - 191은 1966년 8월부터 생산한 최초의 국산 흑백 TV이다. 제품에 따라 받침 다리를 설치해 고급 가

구의 이미지를 부가했는데, 당시 상당히 고가였지만 수요가 높아 공개 추첨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금성사는 이러한 라디오와 TV, 국산 전화기 등 디자인이 적용된 생산품의 성과를 확인함에 따라 1960-1970년대 디자인 전담 부서 및 인력을 점차 확대해나가며 본격적으로 제품에 디자인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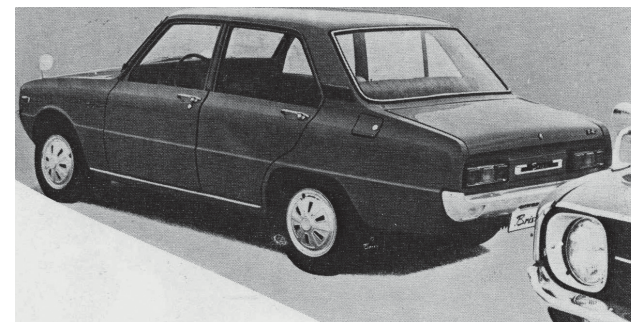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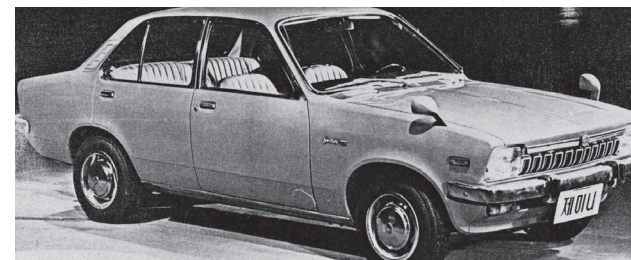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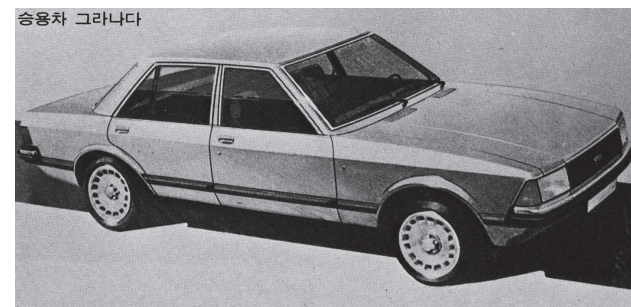
금성사에 이어 삼성전자는 1969년에 설립되어 이듬해인 1970년 일본 산요와 합작해 흑백 TV(모델명 P-3202)를 생산했고 1974년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1977년 컬러 TV, 1979년 VCR를 생산하며 국내 산업디자인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기여했다. 1981년에는 소니의 워크맨의 영향을 받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를 시판했는데 이 제품이 큰 인기를 끌자 금성전자의 ‘아하’, 대우전자의 ‘요요’ 등 유사 제품군이 출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1955년에 시작된 한국의 자동차 공업은 196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기계 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국산 자동차의 개발을 모색하려는 기대 속에서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 모델을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조립 생산한 ‘새나라호’가 만들어졌지만,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인 새나라자동차의 설립 과정과, 블루버드 수입 판매에 관련된 정부의 특혜 시비, 탈세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다 결국 1965년 신진자동차에 인수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드디어 국산 자동차 개발의 꿈이 이뤄지게 된다. 바로 1975년 생산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후륜구동 소형차 ‘포니’가 그것이다. 1973년 10월 3일 정부가 국민차 생산 정책을 공표하자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디자인사와 자동차 설계 계약을 체결, 1974년 독자적으로 고유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포니는 1974년 개최된 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에서 먼저 선을 보여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차체, 모양, 성능, 경제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포니의 성공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디자인의 기

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포니가 나오기 전까지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의 ‘브리사’ 역시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자동차이다.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브리사는 일본의 동양공업(현 마쓰다)이 1970년에 개발한 승용차 ‘파밀리아’의 2세대 모델을 90퍼센트 이상 국산화한 자동차다. 먼저 1973년 8월에 적재량 500킬로그램의 픽업 트럭이, 1974년 10월에 세단이 출시되었는데, 포니가 나타나기 전까지 큰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 2·28 조치(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브리사는 1981년 12월에 후속 차종 없이 강제로 단종되었다.



한국 자동차 제조 3사의 1978년도 모델.
위로부터 현대 포니와 그라나다, 세한 제미니, 기아 브리사
출처: 『디자인포장』 40-41호(1978), 51-53.